“분리수거 등 주민갈등 라디오로 풀어요”

성남시 마을라디오 청솔복지관 FM데이트

복지관 앞마당 스피커를 타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 주변 아파트 위로 넘실거린다.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불교계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월도 스님)의 ‘청솔 FM데이트 방송’. 수신 범위는 성남시 분당구 청솔마을 아파트 6단지다.

마을주민 6명이 직접 DJ가 되어 곡 선정부터 멘트작성까지 책임지는 토착형 지역 마을라디오는 지난 7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방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발성법에서부터 대본 작성법까지 총 35회에 걸쳐 교육도 받았다.

프로그램 종류는 총 5가지. 음악을 들으며 삶을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을 만나는 청솔월드’, 시와 책을 소개하는 ‘비와 맑은 바람’, ‘따뜻한 햇살’, 마을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언니에게 물어봐’, 유쾌한 오전 라디오 ‘너랑나랑’ 등이다. 한 프로그램당 1명내지 2명이 고정으로 투입된다. 지난 방송은 유튜브, 복지관홈페이지, 팟캐스트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초보 DJ들이지만 녹음은 사양, 무조건 ‘생방’만 고집한다. 대본을 외워도 막상 마이크앞에 서면 말을 버벅이는 게 당연지사. 대본 읽기에만 급급했던 첫방송에 비춰본다면 이제는 점차 농담을 던질 타이밍이 보일 정도로 능숙해지고 있다.

방송을 하며 점차 예전의 ‘감’이 돌아온다는 이들도 있다. 희끗한 머리의 미중년 박완국씨는 왕년에 대천시내 음악다방에서 DJ를 했다. 맛깔나게 이야기를 한다 했더니 ‘너랑나랑’ DJ 정미영씨도 성남 라디오 방송 고정 게스트 출신이다.

청솔FM 데이트는 친숙한 이웃 이야기를 통해 정을 나누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 주민 DJ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미영씨와 함께 화요일마다 너랑나랑을 진행하는 남궁민영씨는 청솔마을 통장이다. 분리수거 문제부터 크고 작은 주민간 분쟁을 생생히 옆에서 접해온 장본인인 셈. 갈등사례를 공론화하고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라디오를 활용하고자 DJ에 도전했다.

교계 복지관서 운영… 총 5개 프로
지난 7월 개국, 1주일에 3회 방송
마을 주민 6명이 직업 DJ 맡아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주민참여 라디오 ‘너랑나랑’의 진행자 남궁민영(사진 왼쪽)씨와 정미영씨.

“신청곡, 사연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을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원로 통장님을 초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죠.”

저마다 의견들이 쏟아졌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홍보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주민 DJ들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이들이 마이크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팍팍한 도시삶에서 가까이 사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최근 마을 협동조합, 공동주거, 공동육아 등 마을공동체 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한 주민제안이 1천9백여개에 달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공동체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알면 범죄 발생률도 낮출 수 있고 자녀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완국씨 역시 “현대사회가 도시화 되면서 이웃들간에는 서로 벽이 생겨버렸고 인간성 또한 황폐화됐다”며 “라디오를 통해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 정을 나누다 보면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운동이 위기에 처한 현대 사회에 대한 대안에서 시작된만큼 청솔 FM 데이트가 ‘우리’ 마을 사랑방으로 자리잡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배현진 기자**

아이티 폐허에 희망학교 세우다

아름다운 동행, 9월 24일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완공식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지원해 아이티에 건립한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완공식이 9월 24일 진행됐다.

학교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50여km 떨어진 남부 항구도시 자크멜시에 세워졌다.

350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규모며 교실 8동, 남녀 화장실 각각 한 동과 태양광을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우물시설, 운동장 등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 참사 당시 구호활동에 참여한 아름다운동행은 4억8천만원을 모금, 유네스코와 협력해 학교 건립을 추진해왔다.

공사 기간이 4년이나 걸렸던 데는 지진 이후 콜레라와 매년 반복되는 허리케인 피해, 불안정한 정세와 건축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재건복구 사업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날 완공식에는 자크멜 시장과 유네스코 관계자, 아이티교육부 관계자와 전 아이티 국회상원의장이며 현재 대통령 특별자문인 조셉 램버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위한 훌륭한 공간을 마련해준 한국과 조계종에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

아이티 교육부 국장은 “아이티정부는 2014년 전반기 교육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함으로 교육 의지를 다잡았다”며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학교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크멜 시장 역시 “지진으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학교 건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이 9월 24일 아이티에 건립한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학생대표 또한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의 재정적 지원 및 여러 관련 기관들의 후원과 협력에 학생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학교를 잘 운영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아이티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지 완공식에 참석한 아름다운동행 박찬정 사무국장은 “반목보다는 화해, 미움보다는 사랑, 독점보다는 나눔, 대립보다는 공존을 우선시하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서 많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통해 말했다.

아이티는 지진 전과 후에도 여전히 최빈민국이다. 지진으로 인해 도심 속의 무너진 건물들은 아직도 곳곳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며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주운 페트병과 유리병을 팔아 생활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어르신 장기대회 ‘도전! 바둑왕’ 열려

제4회 울산노인문화제 어르신 장기 바둑대회가 9월 23일 울산중구노인복지관(관장 이임수)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 장기 바둑대회는 만60세이상 어르신 128명을 대상으로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총 7시간의 경연 끝에 9명의 우승자가 결정됐다.

시상은 5급이하와 이상으로 나뉘어 우승, 준우승, 장려상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상장이 전달됐다. 바둑 우승은 김문호, 금태진 어르신이 장기대회 우승은 장광수 어르신 몫으로 돌아갔다.

어르신 행복나들이 봉사자 모집

궁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화수)에서는 가을맞이 어르신나들이 봉사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 인천 영종도로 떠나는 일자리참가자 어르신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사례관리자와 금식대상 어르신 73명이 경기도 안성 팜랜드와 남사당전수관으로 떠난다.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봉사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02)2613-9367

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5주년 맞아

10월 17일 기념식…신임회장에 능행 스님 취임

10월 9일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앞두고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5주년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10월 17일 오후 1시부터 울산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호스피스로서 자비행을 펼쳐온 이들에 대한 봉사상 시상식과 함께 가정방문호스피스의 불교적 돌봄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가정방문호스피스의 지역사회 운영 및 협력체계 방안, 종교인 관점에서 본 가정방문호스피스의 현실과 방향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현장 경험을 나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울산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의 능행 스님(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이 지현 스님의 뒤를 이어 제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과 평온한 죽음을 돌보고자 2009년 조계종 포교원 산하 단체로 설립됐다. 전국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실천가 양성 및 지원 사업, 불교임종의식 연구사업과 임상사례 연구 활동,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

배현진 기자

복지관에 등장한 사자와 토끼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에 난데없이 사자와 토끼가 등장했다. 지난 9월 27일 열렸던 나눔바자회에 복지관 청소년 봉사단원들이 인형탈을 쓰고 나와 행사 분위기를 톡톡 띄운 것. 행사는 지역주민 2천여명의 관심 속에 의류, 생필품 등 알뜰장터와 먹거리 마당, 타로, 룰렛 등 다양한 부대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모두 연말 결식아동 및 저소득 가정 50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바자회를 개최해 노숙인, 홀몸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도와왔다. **배현진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의무금, 분담금 납부안내

2014년 9월 29일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효종 종도스님들께서는 착오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승 려 : 의무금 월 일만원
- 주 지 : 승려의무금 포함 분담금 월 삼만원

문의처 : 대한불교원효종 총 무 원 02)735-0501~2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052)262-6857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종회의장 태운
수석부의장 범일
차석부의장 상진
총무원장 향운

제2회 묘엄불교문화상 공모

고(故) 세주 묘엄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4년 10월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문화, 불교실천, 불교학술 등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 510-2076 / 팩스 051) 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4년 12월 28일. 세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제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